



2021년 1학기
삼육도서100
독후 에세이

-우수작품 사례집-



스미스학부대학

목 차

I. 홍보 포스터	1
II. 학생 수상작(7건)	3
대 상 김시현(유아교육학과, 3학년)	5
우수상 나상은(약학과, 4학년)	11
우수상 박소현(영미어문학부, 1학년)	14
장려상 최서연(간호학과, 1학년)	17
장려상 오석찬(경영학과, 3학년)	20
장려상 이채민(음악학과, 4학년)	23
장려상 변예림(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4학년)	25

2021년 1학기 스미스학부대학

독후 에세이 공모전

삼육 도서 100선 과 3년이내 출판된 신간 도서중 책을 읽고 도서의 주제, 독서 동기, 인상 깊은 점 독서 후 자기성찰 경험 등을 편지 형식 으로 제작하여 제출 하는 독서 공모전



PART 01 **접수기간**
3월 15일~ 6월 30일

PART 02 **모집대상**
삼육대학교 재학생

PART 03 **접수방법**
비교과통합시스템 에서 신청 후 파일 제출 (업로드)

PART 04 **제출양식**
한글 또는 워드로 작성
분량 A4 1~3페이지

PART 05 **심사**
6월 30일~ 7월 30일

PART 06 **발표**
2021년 7월 15일

PART 07 **상금**
총 상금 200만원

대 상 1명 (상금 50만원)
우수상 3명 (상금 30만원)
장려상 3명 (상금 20만원)

문의: 02-3399-3383

스미스학부대학



II

2021-1 삼육도서100 독후 에세이(편지쓰기) 수상자

수상	이름	작품명
대상	김시현	“페인트:이희영 장편소설”
우수상	나상은	“시간의 역사 속에 기억될 지금의 나를 위해”
	박소현	“정치와 도덕을 말하다”
	최서연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를 읽고”
장려상	오석찬	“소년과 우리바다”
	이채민	“1cm 다이빙의 태수님, 문정님께”
	변예림	“당신이 당신다워질 수 있던 용기를 추억하며”

2021년 1학기
삼육도서 100선 독후에세이
공모전 수상작

대 상

김시현, 유아교육학과(2019100383)

독후 에세이 공모전



제 출 일	2021년 5월 25일
책 제 목 /저 자	페인트 : 이희영 장편소설 -이희영
학 과	유아교육과
학 번 /이 름	2019100383 김시현



삼육대학교
SAHMYOOK UNIVERSITY

- 제누301에게

안녕 제누301! 반가워! 나는 삼육대학교에 재학 중인 22살 김시현이라고 해. 책 '페인트'라는 작품을 통해 너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 우연히 보았던 책의 뒷면에는 “부모 면접을 시작하겠습니다.”라는 글귀가 크게 걸려 있었고, 대충 책의 내용이 아이가 부모를 고르는 내용으로 전개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어. 혈연으로 이어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우리는 누구도 서로를 선택할 수 없어. 그런데 입양의 경우에는 표현이 다소 불편할지도 모르겠지만 보통 부모가 될 사람이 마음에 드는 아이를 선택할 수 있지. 그런데 이 책은 오히려 아이가 부모를 선택한다니. 입양에 관련한 내용일까? 혹은 태어나기 전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판타지 장르의 소설일까? 호기심이 생겨 첫 페이지를 넘겼고, 그렇게 너를 알게 되었어. 너에 관한 이야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복잡하고 미묘하고 어려운 감정들이 내 안에서 소용돌이쳤어. 네가 더 궁금했고, 내가 느낀 것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싶었어. 그래서 이렇게 편지로나마 한 글자 적어봐.

네가 사는 시대는 '아이를 잘 낳지 않고, 낳아도 키우지 않으려는 사회'라고 알고 있어.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정부에게 아이를 양도하고, 너 또한 그렇게 '국가의 아이들'로서 일평생 정부가 설립한 'NC(Nation's Children) 센터'에서 쫓 지내왔다고 들었어. 신생아기부터 미취학 아동을 관리하는 퍼스트 센터, 초등학교 입학부터 12살까지 교육하는 세컨드 센터, 그리고 13살부터 19살까지 부모 면접을 보고 부모를 선택해 나갈 수 있는 라스트 센터,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NC센터에서 너는 17살로 라스트 센터에서 지내고 있고. 2년 후 성인이 되면 부모를 만나든 못 만나든 NC센터에서 나가야 하는 거지? 부모를 선택하지 않은 채 19살이 지나 NC센터를 벗어나게 되면 너는 NC출신이라는 꼬리표를 평생 달고 살아야 하는 건데, 너의 세계에서 NC출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생각보다 훨씬 좋지 않고, 그런 세상에서 NC출신으로 홀로 서는 것은 더욱더 힘든 일이겠지. 내가 본 너는 누구보다 똑똑한 아이니까 이를 결코 모르지는 않을 테고.

하지만 너는 대부분의 입양을 원하는 프리포스터들의 속마음이 아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정부 지원금을 원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그들을 속물이라고 생각하는 듯 보였어. 그래서 벽을 치고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겠지. 누군가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을 취하며, 대충 타협할 수 있는 부모를 선택하지만, 독심 있는 너의 태도에 대단하다고 느꼈어. 그러나 너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걱정해주는 '가디'는 늘 1차에서 부모 면접을 종료하는 너를 보며 이대로 가다간 NC출신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마음에 촉박함을 느꼈을 거야. 나 또한 그랬거든. 너의 말투, 행동, 생각에서 너는 참 속이 깊고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고, 너같이 훌륭한 아이가 단지 NC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억압 속에 사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니깐 말이야. 그런데도 너는 차분하고 태연하게 “말도 안 되는 부모 밑에서 살아가는 게 더 어렵죠.”라고 말했어. 맞는 말이야. 너는 참 생각이 깊은 아이지. 하지만 나는 네가 아직 진짜 세상에 나가보지 못해서, 사회에서 받을 매서운 눈초리와 날 선 말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일한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되었어.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부모를 선택하지 않을 것을 후회하게 되면 어찌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아직은 청소년인 네가 알지 못하는 세상의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솔직하고 자유분방한 분위기의 서하나, 이해오름 부부를 만났고, 네가 마음에 들어 하는 것을 보며 나도 조금은 안심한 것 같아. 네가 관심을 보이고 그 마음이 커지면서, 너도 좋은 부모를 선택할 수 있겠구나. 어찌면 조금은 딱딱하고 날카로운 네가 자유로운 그들을 만나서 서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나도 모르게 너의 미래

를 그려봤어. 왜 그즈음에 너의 단짝 동생 아키도 페인트를 통해 곧 좋은 부모가 생길 것 같았잖아. 그래서 둘이 함께 사회로 나가 두 가정이 끈끈한 이웃이 되어 희망찬 미래를 그려나가는 모습이 절로 그려졌지. 책을 읽는 동안 그만큼 너라는 사람에게 빠져 버렸던 거 같아. 또 너의 행복을 바랬고. 어찌 됐든 네가 NC출신으로서 사회에 혼자 발디딤을 하기 전 네가 마음에 들어 하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처음으로 너의 부모 면접은 순탄히 3차까지 갔고, 나는 흐뭇하고 뿌듯한 마음으로 바라봤단다. 그런데 이게 웬일, 나도, 최도, 박도, 모두가 예상치 못하게 너는 부모와 자녀 관계가 성사되기 직전 단계인 합숙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어. 너무 놀랐지. 네가 합숙을 하지 않겠다고 말을 내뱉었음에도 나는 속으로 ‘설마, 아니겠지.’라고 자기 부정을 했어. 하지만 이건 나의 욕심에 불과하다는 것을 곧 깨달았어. 너는 “왜 부모에게만 자격을 따지고 자질을 따지세요? 자식 역시 부모와 잘 지낼 수 있는지 꼼꼼하게 따지셔야죠. 부모라고 모든 걸 알고 언제나 버팀목이 되어 줄 수 있을 거라는 환상은 버리라고 하셨잖아요. 부모라고 무조건 희생해야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요.”라고 말하며, 복잡하고 어려운 가족 관계로 인한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 했어. 단순히 좋은 부모를 선택하려는 생각을 넘어 네가 좋은 아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런 면에서 부모에게 100% 만족을 줄 수 없다고 판단했겠지. 물론 너도 부모에게 그런 만족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고. 그래. 네가 어리기에 세상을 아직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은 완전히 나의 편견이었어. 책의 마지막 부분 박과의 대화에서 너의 마음이 예상을 뛰어넘을 만큼 깊다는 것을 한 문장 한 문장 읽어나갈 때마다 느꼈고, 심지어는 너를 잘못 생각한 내가 부끄럽기까지 해서 두손 두발 다 들고 말았지. 맞아, 너는 네가 한 어떠한 선택이든지 간에 이미 충분히 감당할 자격이 있었다. ‘부모 면접’이라는 어찌 보면 인생 최대의 숙제를 일평생 지고 살아왔던 너는 이 문제에 대해 늘 생각하고 고민해왔을 거야. 아무리 어리고 사회에 나가보지 못했을지라도 당장에 책을 읽은 고작 몇 시간 동안 이 시스템을 이해하고 생각해본 나보다, 내가 살아보지 못한 세상을 경험하고 끊임없이 고민했을 너에게 나의 걱정은 쓸데없는 것이었어. 미안하다! 서하나 부부를 만나 그들과 진정한 교감을 한 것과 별개로 너는 너의 길을 갈 자격이 충분하고, 너는 해낼 거라고 믿는다. 비록 쉽진 않겠지만, 너는 걱정을 하고 앉아있는 것 대신 “사람들이 NC를 차별하니까 우리가 NC출신임을 속인다는 건 ……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라고 말했지. 덧붙여 너는 “NC출신에 대한 차별을 없앨 수 있는 건, 오직 NC출신들 밖에 없어요.”라고 말했어. 열일곱의 소년이 이리 마음이 깊을 수 있을까. 정말 인상적이었어.

대부분의 사람은 사회적 분위기와 세상을 바꿀 생각보단 어찌면 잘 융화돼서 맞추어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할 거야. 나 또한 마찬가지였지. 그래서 나도 모르는 새에 너무 당연하게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삶에 맞춰 평범하게 살아갈지, 정해진 모양의 틀 속에 나를 끼워 넣을 수 있을지만 고민했던 것 같아. 그런데 넌 세상에 널 맞추기보다 세상을 너에게 맞추려 큰 포부를 가지고 있던 거야. 너를 보면서 그동안 하나밖에 생각하지 못했던 나를 반성하고 내 삶의 태도와 방향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볼 수 있었어. 내가 진짜 원하는 것, 가고 싶은 길이 무엇인지, 편하고 안정적인 것보다 중요한 게 무엇인지와 같은 것들을 말이야. 너를 보며 부끄러움을 느끼면서도 한 편으로 새로운 다짐과 용기를 얻게 되니, 가슴과 얼굴이 동시에 뜨거워지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네! 대단하다 제누!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리고 나는 너를 통해 ‘가족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관계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해볼 수 있었어. 특히 너와 하나의 대화를 듣고 생각의 늪에 빠져 꼼꼼이 고민해볼 수 있었지. 하나는 ‘다 널 위해 그런 거야.’라는 식의 말로 어찌면 부모님의 대리 만족을 위해, 꼭두각시처럼 감내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랬잖아. 나 또한 부모님의 사랑에 보상

하기 위해서 부모님 속을 썩이지 않고, 부모님이 좋아하신다면 늘 최선을 다하려고 했거든. 부모님의 기쁨이 곧 내 행복이라고 생각했었으니까. 하지만 그에 따른 부담도 역시 뒤따랐지. 나는 너처럼 부모를 선택하는 위치가 아닌 태어나보니 우리 부모님의 딸이 되었으니까, 나도 모르게 나에게 '딸'이라는 몫이 부여된 거야. 그렇게 부모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나의 몫을 해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면 나 자신에 홀로 상처를 받았고, 반대로 사춘기에는 그런 부담이 화살이 되어 부모님을 향하여 부모님께 상처를 주기도 했겠지. 너는 애초에 이런 상황을 예측했고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지? 그래도 나는 우리 부모님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을 만큼! 하지만, 이렇게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약 내가 NC센터에서 만났다면 어땠을지 생각해보았어. 만나는 순간부터 '이 사람들이 내 부모라면?'이라는 가정을 두고 바라본다면, 오히려 더 깐깐하고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작은 행동, 몸짓, 말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할 거야. 어쩌면 솔직하고 당당한 우리 아빠를 보고, '왜 처음 보는 나에게도 말을 가려 하지 못하지?'라고 생각하면서 좋지 못한 점수를 줄 수도 있겠지. 이처럼 실제로 같이 살다 보면 감싸 안을 수 있는 개인의 한 부분을 페인트를 하는 순간에는 만족, 불만족을 가려내고 점수를 내면서, 평가할 거 같아. 가족이라면 그것보다 더 많은 허물을 보게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면서, 이 작은 단편적인 모습으로 그 사람의 전부와 그 사람과 내가 함께 하는 생활을 그려나야 할 거야. 그래서 나도 너처럼, 내가 부모를 선택할 자격이 있을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볼 것 같아. 그리고 함부로 선택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해.

그동안 지금 내 가족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지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어. 그런데 너로 인해 우리 가족을 들여다보니, 그저 '가족'이라는 이름이 지닌 절대성에 따라 한 인격으로의 개인을 존중하기보다 모두가 서로에게 희생만 강요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들의 일과에 맞춰 아침만 3번이나 차려야 하는 엄마, 개인적인 일로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와중에도 우리를 위해 출근하시는 아빠, 이 모든 순간에서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혼자였다면 절대로 하지 않을 선택과 행동을 하셨던 거야. 그럼에도 그 소중함을 우리는 얼마나 인지하고 있었을까? 부모라고 무조건해야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네가 그랬지. 부모에게만 자질을 따질 수는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 가까운 사람일수록 필요한 만큼 적당한 거리를 두고, 툴툴이 시선을 멀리하여 전체를 바라보도록 말이야. 그렇게 한다면 미처 보지 못하고 무심코 지나가는 일을 방지하고, 서로를 더 존중하고 아껴주는 건강한 관계를 지켜낼 수 있을 거야.

부모가 자식을 선택하는 것, 자식이 부모를 선택하는 것,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것, 모두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러한 주제를 고민하며 내가 내린 결론은 하나였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어떤 결정에도 정답은 없어. 네가 홀로서기를 선택한 것도 보편적으로 '맞다, 틀리다'를 논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거야. 그러나, 어떤 선택을 하든지 소신껏 내가 믿는 대로 그 믿음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겠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었던 나는, 이미 주어진 이 관계에 최선을 다해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도, 누군가의 아픔을 딛고 가는 관계도 아닌, 모두가 행복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야. 너도 언젠가 가족이라는 얽히고설킨 복잡한 관계가, 단지 머리 아픈 일만 동반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즐거움, 행복도 준다는 것을 직접 마음으로 느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 이야기 들어 줘서 고마워! 언젠가 꼭 한 번 만날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 먼발치에서 남아 너의 앞날을 누구보다 응원할게. 그럼 안녕~!

- 너를 보고 싶은 어떤 친구가

2021년 1학기
삼육도서 100선 독후에세이
공모전 수상작

우 수 상

나상은, 약학과(2018101510)

박소현, 영미어문학부(202100078)

최서연, 간호학과(202100708)

시간의 역사 속에 기억될 지금의 나를 위해

- 스티븐 호킹의 「시간의 역사」을 읽고-

스티븐 호킹 박사님께

안녕하세요, 박사님.

박사님께서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 다 되어가네요. 박사님과 동시대를 보낸 한 사람으로서 박사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네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정말 박사님의 말마따나, 단지 한 점에 불과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박사님께서 떠난 이후로 이곳에서의 시간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흘러가고, 계절은 여느 때처럼 바뀌고 바뀌기를 반복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가끔 저에게 뭔가 거대한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느껴져도,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일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한없이 작아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사는 이 우주라는 공간이 너무나도 거대해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고대 로마의 천문학자 프톨레마이오스가 천동설을 주장한 이래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와 별, 그리고 우주와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애써 왔죠. 천동설을 지나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그리고 현대 물리학의 블랙홀과 암흑물질 이론 등 인류는 인간이 가진 가능성을 뛰어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 왔습니다. 이 시도들은 우리 인간이 그만큼 우리가 사는 지구라는 행성과 우주라는 공간에 대해 무궁무진한 호기심과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어렸을 때 참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던 거 같아요. 특히 동물에 대해 관심이 많았답니다. 햄스터, 이구아나, 강아지 등 다양한 동물에 관심을 가졌던 나이였으니까요. 하루는 동네 고양이들과 이야기하고 싶다는 생각에 아파트 모든 동을 돌아다니며 고양이들을 찾아다녔던 일도 있었어요. 온종일 아파트 단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각 동에 있는 고양이들의 모양을 그리고 뽀뽀뽀뽀한 글씨로 색깔이 어땠는지, 어떤 목소리로 울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자세하게 표시해 뒀었어요. 성인이 된 지금의 제가 그때의 저를 돌이켜 본다면, 저는 아마도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순수한 어린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때 작성했던 장래희망을 보더라도, 큰 글씨로 '과학자'라고 쓴 걸 볼 수 있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런 순수한 열정이 없는 거 같습니다. 이 시대의 청년이라는 존재는 어쩔 수 없는 것인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알아가기 위해 시간을 쓸 여유가 다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제 주변을 둘러보기만 하더라도 소위 스펙을 쌓기 위해서 전공과 무관한 공부를 하고, 기업이 좋아할 만한 인재가 되기 위해 '남에게 보이는 자신의 모습'을 가다듬고자 노력하는 학생들이 많으니까요. 어쩌면 저 또한 그런 것을 준비하느라 바쁜 학생일지도 모르겠네요. 살아가는 데 있어, 공부보다 더 필요한 게 많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는 있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 제가 원래 가졌던 세상에 대한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것만 같아서 가끔은 불안해지곤 합니다.

그런 저에게 스티븐 호킹 박사님께서 쓰신 『시간의 역사』는 오랜 시간 제 가슴 속 어딘가에 숨겨놓았던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되찾은 듯한 기분이 들게 해 주었습니다. 빛의 속도라는 게 어떻게 해서 발견된 것인지, 뉴턴의 운동 법칙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그동안 인간이 가져왔던 인식의 틀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등 박사님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어린 시절의 순수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나와는 무관할 것만 같은 천체 물리학적 지식들이 한 점 한 점 이어져 나가 결국 나를 둘러싸는 거대한 세상이 되어간다는 것이, 마치 신의 위용을 바라보는 것처럼 외람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시간과 공간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저는 늘 시간과 공간은 세 개의 축으로 된 시스템 위에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규칙적인 존재라고 생각해 왔었어요. 하지만 양자 물리학을 포함한 다양한 물리학적 이론의 발전으로, 시공간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같이 과거, 현재, 미래를 일직선으로 관통해 나가는 시스템이 아니라, 수많은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는 무언가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즉, 지금 제가 보내고 있는 이 순간순간이 어쩌면 다른 차원, 다른 방향에서는 또 다른 가능성을 가지고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제가 보냈던 과거는, 비록 지금의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잔상처럼 남아있는 '존재하는 과거'로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라는 존재가 입자인지 파동인지조차도 모호한 이 세상 속에서, 시간과 공간이 무엇인지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할지도 몰라요. 아이작 뉴턴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발전해 나간다고 한들 우리 인간은 결국 진리라는 큰 바닷가에서 모래를 줍고 있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어떻게 본다면 이렇게도 무력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빅뱅 이후 세상이 존재해 온 시간에 비교해 본다면 너무나도 짧은 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하루살이 같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내기 위해 노력한

다는 것이 무의미한 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박사님, 저는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오히려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소 모순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을 밝히는 수많은 빛도 알고 보면 찰나에 불과한 수많은 파동이 만들어내는 찬란한 작품이기 때문이죠. 어쩌면 저라는 존재 또한 물리에서 말하는 한 줄기의 파동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빛처럼 저도 저라는 존재를 밝히기 위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이니 말이에요. 만일 그렇게 본다면 저라는 존재 또한, 시간의 역사 속에서 어느 순간 정도는 밝게 비춰주는 빛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모든 순간순간의 저는 더 이상 소실되는 과거가 아닌, 광활한 우주 속에 존재하는 무언가로서 기억되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요? 신께서 저에게 주신 존재의 의미를 구현시키기 위해서라도 조금은 힘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미약한 불빛에 불과할지라도 찬란히 빛날 그 날을 위해서 말이죠.

박사님, 벌써 오늘의 하루도 지나갑니다. 차가운 밤공기가 아름다우면서도 험준한 이 세상을 자각시켜주는 것만 같아요.

비록 세상이 만들어 놓은 허들에 좌절감을 느낄 때도 있지만, 세상에 대한 순수함만은 잃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지금의 저는 과거의 호기심 많은 소년으로부터 이어져 온 저라는 역사이니깐요. 그리고 아직 마주하지 않은 미래의 저를 위해, 앞으로도 저의 페이지를 열심히 써 나가봐야겠습니다.

미래의 저는 지금의 저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부디 기특한 눈빛으로 바라보길 기대해 봅니다.

2021년 6월 30일

우리의 역사 속에 존재하셨던 스티븐 호킹 박사님께
나상은 올림

정치와 도덕을 말하다 - 마이클 셴델

영어영문학부 2021100078 박소현

마이클 셴델 교수님께

교수님 안녕하세요, <정의란 무엇인가> 책과 교수님의 강의를 접했었고 이번 기회에 <정치와 도덕을 말하다>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등학생 때 윤리 과목을 배우고 사회와 문화 과목을 배우며 교수님을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철도에서의 상황이 정말 인상 깊었는데 이번 책을 계기로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정치와 도덕을 말하다> 책은 미국의 시민 생활 소개와 전체 사회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체의 역할과 좋은 삶에 대해 쓰여 있는 것을 보고 저희가 주변에서 마주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 책을 읽는 내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도 교수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교수님이 제시해주신 화두인 소수집단 우대정책에 대해 저도 의견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우선 우리는 복지 국가를 지향하는 국가이다. 이것이 미국이던 우리나라던 영국이던 마찬가지다. 복지 국가에서 소수집단이라고 하는 차별 받고 다수 집단에 비해 힘들게 살아가는 집단에 대한 혜택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집단은 과거에 충분한 피해를 입었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흑인들의 경우가 그러한데 이것을 교수님은 보상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 보상도 결국 소수집단우대가 필요한 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의 오늘날의 다양성을 기준으로 한 대학의 사명실천과 과거의 인종차별로 인한 사명실천의 원칙적 차이는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저는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을 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양성을 기준으로 한 현대의 대학은 다양한 인간들을 접해 보고 그들과 한데 어우러져 학습을 하는 것은 하나의 지구, 지구촌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고 또 대학에도 충분히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존재했던 인종차별로 인한 사명실천의 경우 악의를 가지고 특정 집단을 배제한 것 즉, 차별이 아닌가 악의와 차별의 유무, 이것이 두 사안의 원칙적 차이점 같습니다. 이 주제로 미국인들의 여러 입장을 찾아보게 되었고 찬성하는 사람은 미국사회에서 소수집단으로 대우받는 아시아계, 히스패닉계, 흑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반면에 반대하는 입장은 주로 다수 집단에 속하는 백인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반대입장의 근거는 바로 인종은 자기통제요건이 아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결정할 수 없는 요건에 의해 차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였습니다. 물론 이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저는 약간 그들이 이기적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교수님이 중간중간 말씀해주신 롤즈의 견해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롤즈는 도덕기준은 분배정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소수집단 우대정책은 소수집단이라는 약자집단에게 사회가 사회의 권력으로 분배하는 행위다. 이것은 비도덕적이지는 않다. 하지만 정의로운 분배라고는 할 수 없지 않을까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롤즈에 대해 읽고 고등학생 때 배운 것을 떠올려 보았을 때 롤즈의 사상에서 그가 말하는 '차등의 원리'가 과연 능력주의의 한계를 뛰어넘는 최선의 방법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도 롤즈가 주장한 능력주의의 한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또한, 고소득자 즉, 자

연에 의해 혜택을 받는 집단에게 과세를 해서 그 혜택을 극빈층에게 나누도록 한 것 역시 동의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갈 수는 없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거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플라톤은 지배계급의 사유재산 소유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처자공유제라고 하는 부인을 공유하여 자식을 많이 낳다 보면 그 지배자가 자신의 아이가 누군지를 모르므로 자연스럽게 상속의지를 상실한다는 주장을 했다. 물론 제가 그 극단적인 주장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지만 플라톤의 생각처럼 상속을 못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출발선 상에서 시작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수님이 롤즈와는 반대되는 입장이라고 들었습니다. 교수님은 공동체주의자 이지만, 롤즈는 사회는 계약으로 구성 됐다는 사회계약론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롤즈는 가상의 계약 즉, 무지의 장막 뒤에서 한 계약을 말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고 싶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롤즈는 인간이 자신이 처할 입장을 알게 된다면 예를 들어 내가 부자가 된다는 것을 미리 안다면 나는 부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 나갈 것이니 모두가 자신의 입장을 알지 못한 채 합의를 해야 정당한 계약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선 공평한 출발점을 만들고 거기서 능력을 중시하자라는데 까지는 저도 롤즈와 생각은 같았습니다. 롤즈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차등의 원리" 이것이 롤즈가 주장한 능력주의의 한계를 뛰어넘어 극빈층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 했습니다. 또한 롤즈는 능력 또한 실력이 아닌 운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에 태어난 것 역시 행운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여기서 두 입장으로 생각해 보았는데 학생들이 일류대학에 들어간 것은 그들의 노력이며 만약 이것 또한 극빈층을 우대해주는 정책으로 입학을 허용한다면 그들은 노력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머리가 좋고 뛰어난 사람이 환경이 좋지 않아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여 일류대학에 못 들어간 것이라면? 그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져야 옳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롤즈가 극빈층을 구제하고 최고 소득자와 최저 소득자간의 격차를 줄이기를 원한다면 저는 지배계급의 상속을 폐지하는 플라톤의 주장을 차용하여 모든 사람들이 상속을 할 수 없도록 해서 배경이나, 경제력의 차이 없이 출발선상에서 정말 나란히 출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제시해주신 다른 화두 "조력 자살의 권리를 허용해야 하는가?"에서 칸트의 주장을 엿볼 수 있었고 이 부분에서도 제가 평소 알고 있던 내용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성을 가지고 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의무 즉, 도덕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관념 속에 박혀있습니다. 이것은 "살인이 나쁜 것이다, 도둑질은 나쁜 것이다"와 같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가져야 할 관념이며 이성이다. 칸트는 인간에게 타인을 죽일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죽일 권리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칸트의 의견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조력자살의 방법이 잔인하게 죽이는 것이 아니더라도 의사가 환자와 남은 가족들을 위해 안락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뇌사 판정을 받은 환자는 남은 일생을 제대로 살 수 없을 것이고 남겨진 가족들은 감당하기 힘든 치료비를 내야 하고 언제 깨어날 지 모르는 환자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환자에게도 고통이고 남겨진 가족들에게도 아픔이기

때문에 의사는 환자의 동의가 가장 중요하고 환자가 의견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들의 의견을 물어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만 생명 중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장에서 말하는 거짓말에 대한 칸트 입장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칸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거짓말은 하면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의도 자체가 정말 선한 것이었다면 이것도 안되는 것일까?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칸트는 예외 없이 안된다고 할 것 이지만 저는 저의 선한 의도로 비롯하여 낳은 거짓말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었다면 무조건 옳지 않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의 <정치와 도덕을 말하다> 책을 읽으며 제가 고등학생 때 배웠던 사상가들을 떠올리며 더 많이 그들의 입장을 공감할 수 있었고, 그때는 그들의 사상을 외우고 넘어갔다면 지금은 그들의 사상에 반박을 하며 그들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책에 나온 화두 뿐만 아니라 교수님이 평소 강연에서 많이 말씀해주신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 책을 통해 깊게 생각해볼게 되었고 저는 사실 그 어느 쪽도 정답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자라온 환경과 성격 자체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른데 어느 한 쪽만 맞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교수님도 그 어느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리시지는 않지만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더 인상 깊었습니다. 다른 철학자들은 자신의 원리를 적용하여 본인이 맞다는 것을 주장하지만 교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를 제시하면 여러 사람들의 입장을 듣고 "이러면 어떨까?"라고 해주셔서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맞다고 생각한 부분들을 교수님께 역으로 질문을 던지고 교수님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에 그치지 않고 <정치와 도덕을 말하다>로 저에게 많은 생각을 되돌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
2021100708 간호학과 최서연, 독후 에세이 공모전

할아버지께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하늘에서 편안히 쉬고 계신가요? 저는 할아버지께 살아생전 한 번도 쓴 적 없는 편지를 20살이 된 지금 처음으로 작성해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공립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던 만큼 저와 오빠의 교육에도 관심이 많으셨죠. 추석에 할아버지 댁에서 최근에 배운 영어 문법을 읊은 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독서와 배움을 강조하셨지만 대학교에 합격한지 반 년이 흘렀는데도 제대로 책을 읽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신청하게 되면서 책을 읽을 계기가 하나 생겼는데, 저는 오로지 제목만 보고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라는 책을 골랐습니다. 그저 이상향이라는 단어 하나만을 표지에 달고 있는 것이 멋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인데, 유토피아라는 단어가 책의 저자인 토머스 모어로부터 나온 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책을 고르고 나니 편지를 받는 사람도 어렵지 않게 결정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할아버지가 계신 친가는 현실 그 자체였거든요. 유토피아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지만, 현실은 보기 싫어도 볼 수밖에 없기 마련이죠. 저에게는 친가가 현실의 압축판과 다를 없었습니다. 다같이 언성을 높이며 성성, 학력, 재산 등으로 사람을 분간하고 차별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가슴이 답답하다는 느낌을 자주 받았어요. 이는 할아버지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현실이 되어주셨던 분에게, 이제 막 성인이 된 20살의 초여름을 바탕으로 이상향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나름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부디 편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토피아의 사람들은 사유재산을 소유하지 않으며, 농업이라는 공통된 직업을 갖고 하루에 6시간만 노동에 투자했습니다. 사실 사회주의는 실현이 되기 힘든 만큼 가장 바람직한 공동체 운영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책을 읽었을 때에는 저도 환상의 늪에 빠졌어요. 불안정한 미래와 빈부격차의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현실에서는 그 어떤 스트레스도 받지 않을 것 같은 느낌도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의 모든 근원은 경제적 문제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유토피아에도 노예 제도가 존재한다는 부분을 읽고 나니, 유토피아는 사람의 수만큼 다양하다는 결론에 도착했습니다. 적어도 제가 상상한 유토피아에선 노예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고, 모두가 동등하게 존경을 받는 사회였어요. 자살을 택한 자를 경멸하며 시체를 아무런 의식 없이 연못 속에 던져버린다는 구절은 저라는 사람은 토머스 모어와 아주 다른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자살로 인해 남에게 피해를 줬거나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그의 선택을 존중하고 애도해야 합니다. 유토피아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양상이 변하는 것이고, 모두에게 절대적이지 않아요. 저의 유토피아는 경제적인 부분에서만 토머스 모어와 뜻이 일치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이가 있다면 노예로 강등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구속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또한 자살을 선택한 자에게 고인 모독과 다름없는 행위를 하는 것 역시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6세기의 작품이기 때문인지, 여성이 남성의 지위 아래에 있다는 전제 역시 불편하게 다가왔어요. 할아버지는 저와 오빠를 편애하셨는데, 저의 현실이 토머스 모어의 이상 공간과 겹친다는 사실이 조금 우습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따진다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도 중산층의 백인 남자에게는 유토피아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아버지께서 담배 냄새가 가득한 방에서 오빠와 저를 나란히 앉혀두고 하셨던 말씀은 모두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 공기와 불쾌한 감각은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그 현실이 잊혀지지 않는 한,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가 저의 이상향이 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저에게 좋은 것만을 알려주신 적이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부정적인 것들을 모두 양분 삼아 제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습

니다. 그런 의도가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덕분에 인내와 참을성을 가질 수 있었어요. 어른들의 싸움에 끼어들지 않고, 어른들의 말씀에 대들지 않고, 적당히 침묵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때로는 현명하다는 것을 미리 배워둬서 다행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보면 그런 소시민적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난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이런 부분에선 할아버지에게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의 유토피아는 어떤 세상일지 궁금했어요. 이제는 여쭙볼 수 없는 곳에 계시기 때문에 더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할아버지에게 훈계를 받은 시간은 굉장히 길었던 것 같은데, 막상 제가 할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많이 없었어요. 무슨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어떤 친구분들이 있으신지, 어떻게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시는지, 어떤 방식으로 지금껏 살아오셨는지... 그 흔적을 밟아보기 위해 짧게 남아있는 기억을 되짚어 보았는데, 제가 기억하는 할아버지의 장례식은 아무도 울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끼리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며 각자의 자리를 지킬 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바랐던 건 그런게 아니었죠? 저도 그 당시에 잠시 장례식장의 자리만 지키다 금방 떠나버려서 이런 글을 쓰기 조금 죄송스러워요. 제가 생각하기에, 할아버지는 교육에 있어서 모두가 평등한 유토피아를 꿈꾸시지 않았을까 감히 추측해봅니다. 보수적이고 남녀에 대한 구분이 확실하신 분이셨지만, 교육에 있어서는 저도 오빠와 동일한 기회를 갖길 바라셨으니까요.

이 책을 읽고, 저는 저만의 유토피아를 적극적으로 확립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너무 수동적인 태도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유토피아는 마법과 같은 판타지가 존재하는 세상이 아닌만큼, 제가 노력만 한다면 그에 가까운 세상을 살 수도 있을 거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게 다가오는 것을 그저 수용하기만 하는 태도는 청산할테니 하늘에서 잘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한 번 해보도록 할게요.

-할아버지의 손녀 최서연 올림
2021.5.27

2021년 1학기
삼육도서 100선 독후에세이
공모전 수상작

장 려 상

오석찬, 경영학과(2016101123)

이채민, 음악학과(2018101475)

변예림, 커뮤니케이션디자인(2015101078)

소년과 우리의 바다¹⁾

2016101123 경영학과 오석찬

시간이라는 물결 위에 흘러가는 삶

우리가 늙어간다고 생각하게 될 때는 언제일까요? 각자가 다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무언가를 상실해가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탄력 있는 피부를 잃어갈 때, 무릎 연골이 닳아져갈 때, 통장잔고에 들어있는 액수가 늘어나기보다 줄어들어갈 때,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를 잃어갈 때. 그래서인지 늙는다는 걸 유쾌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내 인생에 남겨진 시간을 잃어가고 있으니깐요. 흔히 나누는 말처럼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시에 죽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반대로 남겨진 시간이 소멸되는 것을 즐길 때도 있습니다. 전역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병사들에게 ‘나이듦’이란 반가운 것이겠지요. 그러나 군인들도 모든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길 바라진 않습니다. 그들에게 휴가로 주어지는 시간은 정반대로 다가옵니다. 저도 부대에서 처음 휴가를 나왔던 날 일분일초가 아까워 잠들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복귀 날은 다가오기 마련이지요. 이러한 정서가 드리울 것을 미리 예감한 까닭인지 막사에서 휴가 출발일의 전야가 오면 그간 휴가를 기다리며 고양되었던 기분이 오히려 가라앉곤 했습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휴가가 끝나는 것도 전역에 더 가까워지는 것이니 기뻐해야 하겠으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군인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가 바로 앞에 놓인 것일수록 커다랗게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금융시장에서 재화의 현재가치가 미래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갖는 현상이 이를 수치적으로 증명하지요.

그런데 휴가를 나왔든 부대에 있던 모든 군인들에게 서글픈 사실은 제대에 가까워질수록 죽음에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다시 묻게 됩니다. 제대를 기다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시간의 유한성 가운데 발생하는 딜레마는 군인이 아니더라도 비켜가기 어렵습니다. 수능생은 대학 생활을 기다려야 할까요. 취업준비생은 다가올 직장생활을 반가워해야 할까요. 직장인에게 정년퇴직은요? 이 글을 읽고 있는 순간에도 우리의 심장 속 모래시계에서 모래가 빠져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할까요. 시간이란 본질적으로 소멸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오묘하고 그 연속선상에서 흘러가는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인과 결과 사이에서 표류하는 노인

다들 들어봤을 법한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는 제목에서부터 늙음에 대한 생각을 떠오르게 해줍니다. 거칠게 요약하자면 작은 배 한 척을 몰고 바다에 나가 꼬박 사흘의 시간과 사투 끝에 쟁취해낸 청새치를 상어에게 물어 뜯겨 결국 앙상한 뼈만 남기고 돌아오는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청새치는 주로 노인의 소유욕과 권력욕이 투사되는 상징으로서 ‘자본’과 ‘명예’로 읽혀져 왔지만 ‘연애’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소비를 유도해 우리를 유토피아(처럼 보이는 디스토피아)로 초대하는데요, 연애는 우리가 데이트 공간을 찾아가 지출을 하도록 촉진합니다. 아름다운 명소에 방문하는 자신을 SNS에 전시할 때 ‘사랑’이 추가된다면 더

1) 제목은 가수 아이유가 발표한 앨범 《LILAC》의 수록곡 〈아이와 나의 바다〉에서 착안했습니다.

근사하잖아요. 우리의 ‘전시 욕망’을 채워주는 데 ‘소비사회’와 ‘연애’는 환상적인 궁합입니다.²⁾ 적당한 거리를 두지 않고 상대를 구속하는 연인과 청새치를 맞출로 단단하게 묶은 노인.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지만 지금까지 노력하며 쌓아온 시간에 얽힌 서사 때문에 끊어내지 못하는 연인의 모습과 잇따른 상어의 습격에도 끝까지 청새치를 놓지 못하는 노인의 모습은 상당히 닮아있습니다.

녀석이 나를 데리고 가는 걸까, 아니면 내가 녀석을 데리고 가는 걸까? (...) 하지만 지금 우리 하나로 묶인 채 함께 나란히 바다를 헤쳐가고 있지 않은가(126~127쪽)³⁾

연인을 사랑해서 연애를 하는 걸까, 아니면 연애를 사랑해서 연애를 하는 걸까? 혹은 연인을 사랑하는 내 모습을 사랑해서 연애를 하는 걸까? 이러한 의문들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와중에도 연인들은 하나로 묶인 채 나란히 손을 맞잡고 길을 걸어가지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목표를 성취해나갈 때 주객이나 본말이 전도되는 경우는 연애 이외에도 심심치 않게 발견됩니다.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봉사하는 것인지, 봉사하는 내 모습에 심취하여 봉사하는 것인지. 외로워서 SNS를 하는 것인지, SNS를 해서 외로운 것인지. 책 읽기를 좋아해서 책을 사는 것인지, 책 사기를 좋아해서 책을 읽는 것인지. 살기 위해 돈을 버는 것인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것인지. 살기 위해 먹는 것인지, 먹기 위해 사는 것인지... 원인과 결과는 곳곳에서 우리의 경로를 헛갈리게 합니다. 이 장애물에 걸리는 순간 우리는 이 넓은 바다를 정처 없이 헤쳐가다 헤매기 십상이지요.

결국 과거의 파도 속으로 잠기게 되는 것을

이렇게 원인과 결과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면서도 우리는 무언가를 쌓아올리고 지키려 애씁니다. 그 무언가를 우리는 성과라 부르지요. 하지만 성과란 돈과 명예, 인연 등 어느 것이 되었든 과거로부터 온 것이고, 이 중에 대부분은 언젠가 소멸하여 과거의 것만으로 회귀하기 마련입니다.

이제껏 수도 없이 이를 증명해 보이긴 했지만, 그것은 이미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했다. 이제 다시 그는 이를 증명해 보이려 하고 있었다. 매번 현재의 순간이 새로운 기회의 순간이었고, 새로운 기회의 순간이 올 때마다 그는 과거를 잊고 현재에만 몰두했다.(82쪽)

여기서 노인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에 집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쩐지 그는 행복해 보이지가 않지요. 이는 그가 현재의 산물을 위해 현재에 몰두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노인이 몰두한 현재는 더 위대한 성과를 쌓기 위한 현재였으며, 이룩한 성과들은 앞서 말했듯 과거의 것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그가 품은 현재를 향한 집념은 역설적으로 과거를 향한 역행이라 볼 수 있지요. 아닌 게 아니라 노인이 현재를 잔뜩 쥐어짜 쟁취한 청새치는 결국 상어들에게 여러 차례 물어 뜯겨 과거의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헤밍웨이는 이 과정 중 노인의 상반되는 두 자아를 병치함으로써 이 사이를 수습

2) 본 통찰은 다음 책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지우,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우리는 왜 연애를 갈망하는가」, 한겨레출판, 2020, 51~56쪽

3) 어니스트 헤밍웨이, 장경렬 옮김, 『노인과 바다』, 시공사, 2012. 이하 인용은 본문에 쪽수만 표기합니다.

번 우왕좌왕하는 인간의 삶 속 번뇌를 탁월하게 그려내는데요. 그는 과거로부터 얻어낸 것들을 지키려 애쓰면서도 이에 따르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체감하고는 이 순간이 “꿈이라면 얼마나 좋을까”(133, 142, 144쪽), 총 세 번을 외칩니다. 그리고 이내 곧바로 다시 스스로에게 고기를 지켜내라는 혼잣말을 하지요. 고기의 앞부분 절반이 남은 막바지에 가서도 노인은 “죽을 때까지 놈들과 싸움을 계속하는 거다.”(149쪽)라며 결의를 다집니다.

꿈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고기를 낚지도 않았고, 신문지를 깔 침대에서 그냥 혼자 누워있는 거라면 얼마나 좋을까. (...) “노인 양반, 쓸데없는 생각일랑 접어두게. 이제까지 온 길을 따라 계속 가게. 그리고 일이 터지면 그때 가서 보게나.”(133~134쪽)

늙어간다는 것은 잃어간다는 것

상실을 처절하게 마주하고 난 후에야 노인은 과거를 차분히 반추하게 됩니다. “난 진 게 아니야. 다만 너무 멀리 나갔다 왔을 뿐이야.”(155쪽)라면서요. 그가 항구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모두가 잠자리에 들어 조용했고 배에 묶여있던 청새치의 몸은 앙상한 뼈만 남아있었습니다. 노인은 오두막까지 비탈진 길을 오르며 넘어지고 다섯 번이나 앉아 쉬기를 반복하지요. 이때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전부 과거가 될 현재에 집착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 허탈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인은 지속되지 않아 변해가고 사라져가는 것들에 허망함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이 감정을 공들인 시간들과 함께 흘려보내야 함을 깨달았는지 모릅니다. “놈들한테 정말로 철저히 지고 말았어”(159쪽)라며 모든 것을 풍화시키는 시간의 야속함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이 앞에서 인간의 무력함을 받아들인 그는 남은 고기의 머리를 페드리코에게, 주둥이를 소년에게 기증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삶을 관조하게 된 노인은 오두막에 누워 평화를 얻습니다.

이제 배는 가볍게 앞으로 움직였다. 그는 어떤 생각에도, 어떤 느낌에도 매달리지 않았다. 이제 그에게 모든 것은 과거의 일이 되었다. (...) 노인은 더 이상 놈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배를 모는 일 이외에는 어떤 일에도 달리 신경을 쓰지 않았다. 다만 그의 곁에 있던 엄청난 무게가 사라지자 이제 배가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부드럽게 앞으로 나아가는가를 의식할 뿐이었다.(154쪽)

늙어간다는 것은 이런 것일까요. 상실을 받아들이고 다음으로 다가올 상실 앞에서 의연해지는 것. 어쩌면 상실로 인한 빈 공간을 느끼는 감각조차 시나브로 사워어 갈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많은 이들은 아직 자신 안에 작은 구멍이 생기는 것조차 두려워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하지 않기에 소중한다는 말로는 공허한 마음이 오롯이 매만져지지 않지요. 최승자 시인은 “일찍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 내가 살아 있다는 것, 그것은 영원한 루머에 지나지 않는다.”⁴⁾며 자신의 삶마저 미련 없이 떠나보낼 준비를 마친 것 같던데요. 아무래도 우리는, 바다에서 돌아온 노인을 보고 연이어 울음을 터뜨렸던 소년의 모습에 가깝나봅니다.

‘소년과 우리의 바다’에서 ‘노인과 상실의 바다’를 건너기까지 당신은 어디쯤 오셨습니까. 거친 바다를 향해하여 각자의 종착지에 다다를 때까지 모두 안녕하시길 바랍니다.

4) 최승자, 『이 시대의 사랑』, 『일찍이 나는』, 문학과지성사, 2020, 11쪽

1cm 다이빙의 태수님, 문정님께

음악학과 이채민(2018101475)

안녕하세요~ 저는 삼육대학교를 다니는 늦깎이 대학생 이채민 이라고 합니다. 선생님들의 책을 고르게 된 이유는 일단 노란 표지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딱 좋아보였지요. 그렇게 제 눈에도 이 책이 도드라지게 보였고 그렇게 해서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목만 보고선 '물에서 수영하는 이야기인가?', '맨 땅에 헤딩이라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전혀 다른 예측불허의 이야기가 전개되며 2시간 만에 다 읽게 되었습니다. 누구는 1시간 반만에 다 읽었다는데, 그만큼 흡입력이 높다는 거겠지요?

우선 선생님 두 분은 서로에게 직접 겪었던 '희, 노, 애, 락' 에 관한 질문을 하며 이야기를 풀어가는 게 참 독특하다고 느꼈어요. 이게 프로젝트라는 데에서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우리는 참 웃기게도 학교를 다닐 때에는 그렇게 종강 후 방학을 찾더니, 막상 방학이 되면 뭘 해야 할지 도통 몰라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냥 하루 종일 핸드폰을 보면서 침대와 하나로 합체됐어요. 그러면서 제 손에는 항상 핸드폰을 들고 있었죠. 선생님들의 첫 이야기 소재는 '핸드폰'이었는데, 핸드폰보다 과연 재미있는 게 있느냐는 말씀에서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우리는 핸드폰 없이는 절대 아무것도 못하는 '핸드폰 바보'가 되어 있더라구요. 생각해보니 하루라도 핸드폰을 보지 않는 날이 없네요. 저는 최근에서야 들은 이야기인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핸드폰을 화장실에서든 본다는 거예요. 저는 화장실에서 일만 중요시 여겨서 다른 사람들처럼 그 정도는 아닌데, 생각해보니 저희 엄마와 동생이 그러더라구요. 어쩐지 두 여자가 각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함흥차사였어요. 이게 우리 집만의 일이 아니라니 육성으로 현실 웃음이 났어요. 하하하하하하.

저는 늦깎이 대학생이라 회사도 잠시 다녀왔고, 알바는 년덜머리가 나게 많이 해봤지요. 그래서 선생님들처럼 직장 내 인간관계의 스트레스에 대한 내용에 공감이 많이 되었어요. 또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계시더군요. 물론 선생님들 스스로가 만족했다면 그걸로 좋은 거지만, 저는 어쩐지 선생님들이 상사의 부조리함에 대해 끝까지 말하지 못한 게 너무 화가 났어요! 저는 오히려 남들에게 '쌈닭'이였거든요. 물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저의 첫 알바는 대형마트 건전지 판촉 알바였는데, 어떤 물건을 찾아 달라는 요구에 잘못 응대해서 어떤 진상에게 엄청난 욕을 먹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고, 진짜 평평 울었죠. 그땐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많이 창피했네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진상은 다른 경쟁마트의 직원이었고 제가 재수 없이 걸린 것 이었더라구요. 이 날 이후로 저는 마치 게임에서 레벨 업을 한 느낌이었어요. 선생님들이 언급하신 '메이플스토리'를 저도 오랫동안 해왔었거든요. 지금도 제 노트북에 깔려있어요. 하지만 학기 중엔 아예 손도 못 대고 있는 것은 TMI 입니다. 하하하. 암튼 제 알바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그날일이 제게 각성이 되어서 어느 알바를 하던지, 어느 회사에 가던지 할 말은 꼭 했어요. 어느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요구를 해오면 눈 똑바로 뜨고 제대로 맞받아쳤죠. 밉보여도 어쩔 수 없어요. 성격상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할 말은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막 쏘아붙였어요. 제대로 무장 했지요.

반면에, 선생님들의 생각과 공감이 크게 되는 부분은 저 자신을 한없이 깎아 내리는 것이었어요. 선생님들은 직장 상사가 말한 '또래보다 조금 떨어지네' 라는 말을 듣고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아요. 저였으면 그 말을 들었을 때 표정으로 바로 나타났을 거예요. 선생님들은 표정

을 잘 숨기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이 학교에 오기 전에 다른 학교 입시를 치룰 때였는데요. 그 실기시험 날 정말 노래를 못 부를수가 없는 거예요. 암튼 그렇게 망치고 돌아서는데, 그때 감독하던 여학생 중 하나가 ‘와우~ 역대급 인데?’ 하면서 저를 조롱하더군요. 당연히 엄청나게 역대급 으로 못 부르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었지만 그 음성이 집에 와서 속상한 마음으로 침대에 누웠을 때 더 또렷하게 들렸어요. 그 일이 있던 후에, 다음 시험까지 시원하게 말아 먹었고 그 해의 입시는 완전 망쳐버렸어요. 그게 트라우마가 되서 ‘나는 안될 거야. 나는 그렇게 밖에 못 부르니까.’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는 그 말이 정말 미친 듯이 심장에 비수를 꽂은 듯 아팠는데, ‘아, 그렇지.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 않으니깐 그렇게 말을 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정을 하니까 비로소 편해지더라고요. 나를 깎아 내리는 것이 이렇게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구나 싶었어요. 다행히 인정을 한 뒤엔, 이 학교 편입에 아주 운이 좋게 합격되었다는 사실!!

여기 삼육대학교에 합격 한 이후에는 저보다 한참 어린 동기들이 전부 ‘아이패드’를 갖고 있었어요. 정말 ‘미래에는 ~ 하겠지’ 라고 상상하던 일이 발생한거예요. 무거운 종이악보, 그리고 손에 꼭 잉크가 묻거나 항상 찌르던 샤프 또는 볼펜들. 이것들이 사라지고 A4용지만한 크기의 기계를 하나씩 갖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세상에..... 펜슬도 손에 묻지도, 찢리지도 않는 전자 펜슬이에요. 그래서 저도 쉽 없이 달려온 불쌍한 저에게 선물을 주기로 했어요. 저는 참 배포가 커도 너무 큰 사람인가 봐요. 아뇨 이걸 대책 없이 지른거죠 뭐. 선생님들은 자기 자신에게 기껏해야 ‘15만원짜리 안경테 또는 텀테이블’을 주셨는데..... 제가 저에게 주는 첫 선물치고 1백만원이 넘는 선물을 주었어요. 그때 마침, 감사하게도 타이밍에 딱 맞게 ‘코로나 19 재난지원금’이 나와서 제 용돈을 보태서 살 수 있었어요. 제가 특정 종교를 믿지는 않지만, 이걸 무조건 신의 계시다! 싶었죠.

제가 느낀 이 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소확행’ 인데, 재미있는 것은 책을 읽는 중간 중간에 선생님들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며 ‘자기반성’ 또는 ‘목표’를 찾게끔 하셨죠. 저는 저에게 질문은 하지 않지만 약간의 자기반성을 목적으로 일기를 써요. 그날의 하루를 되돌아볼 수 있어서 좋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일기를 쓰게 만든 원동력은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이 숙제로 꼭 내주신 ‘일기쓰기’ 에요. 밀려서라도 열심히 써낸 결과가 아닐까 싶네요. 일기를 쓰면 제가 어떤 일이 있어서 속상했는지 아니면 누구 때문에 설렸는지,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먹었는지. 다 알수가 있어서 좋고 뿌듯해요. 덕분에 글씨체도 예뻐졌고, 글쓰기 실력도 늘어서 숙제가 있으면 오랜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똑딱 써낼 수 있답니다.

책 한 권이 ‘나’ 라는 사람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을 준다는 점에 참 감사했어요. 왜 금방 유명해졌는지 알겠고, 제가 2시간 만에 다 읽을 수 있었는지 알수 있었어요. 종이책 말고 E-BOOK으로 다운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오래오래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일기에는 책 속의 내용처럼 질문을 몇 개 적어서 답을 적어볼까 싶어요. 아! 또 이 책에 감사한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가수 ‘이상은’님의 ‘비밀의 화원’ 이란 노래 제목을 알게 해줘서 너무 감사드려요! 가수 ‘아이유’가 리메이크해서 참 듣기 좋았는데, 제목은 몰랐거든요. 선생님들의 책 덕분에 하루 종일 이 노래만 흥얼댔어요. 여러모로 너무 감사합니다.

- 당신이 당신다워질 수 있던 용기를 추억하며

-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읽고 -

안녕하세요, 영혜 씨.

날씨가 무척 후덥지근해졌네요. 일기예보에서는 곧 장마가 올 거라고도 해요. 한파로 온 세상이 뽁뽁 얼어붙었던 게 어제 같은데, 지금은 온 세상이 초록빛으로 물들어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자연이란 게 얼마나 신묘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된답니다. 그렇게 생각해본다면, 우리 사람도 자연의 일부인 만큼,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힘든 무언가를 가슴에 품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혜 씨는 아직도 채식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 동물로서의 인간의 삶을 거부하시고, 이제 식물로서 살아가시길 바라셨다고 들었는데,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않아서 많이 힘드셨을 거 같아요. 사실, 영혜 씨가 의도한 것은 단순히 우리가 말로서 내뱉는 ‘단어’에 국한된 것이 아닐 텐데 말이죠.

사실 저도 채식주의자예요. 하지만 보통 사람들처럼 다이어트나 미용을 위해 채식주의자가 된 것은 아니랍니다. 제가 채식주의자가 된 것은 어릴 적 시장에서 보았던 닭 때문이에요. 기억을 해보면, 아마도 초등학교 3학년 때 즈음, 모란시장에 방문했었을 때였던 거 같아요. 오랜 만에 외가를 찾아간 저는 외할아버지와 함께 시장에 놀러 갔었어요. 상자 속에 담겨 판매되고 있던 새끼 고양이, 포대 가득 담겨 있던 빵튀기와 강냉이 과자……. 그 시절 시골벽적했던 시장의 풍경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 뇌리에 가장 강하게 남았던 것은, 새끼 고양이도 과자도 아닌 생닭을 잡는 트럭이었답니다.

당시 우리 외할아버지께서는 당신 손주들이 놀러 왔다며 맛있는 닭볶음탕을 해주시고 싶으셨던 요량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 생닭을 파는 곳으로 갔는데, 파란 쇠창살 사이로 촘촘하게 부리를 내밀고 있는 닭들이 마치 저를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졌던 거 있죠? 외할아버지께서 트럭 아저씨에게 한 마리를 사겠다며 돈을 건네자, 아저씨는 순식간에 저를 바라보던 닭 중 한 마리의 목을 잡고 꺼내셨어요. 그리고는 세탁기 같은 통에 넣었죠. 날카로운 기계 돌아가는 소리에 저는 닭의 비명 소리조차도 제대로 듣지 못했답니다. 닭이 시퍼런 통을 통과한 지 몇 분이 흐르지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정신없이 뜯어진 깃털과 함께 기계 밖으로 떨어져 나온 닭은 더는 저를 바라보던 생명체가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의 희멀건 시체일 뿐이었죠. 저는 기계 주변을 따라 조금씩 흘러내리던 핏물이 바닥에 고이는 것도 보았답니다. 어린 제 눈에 들어왔던 광경은 실로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충격이었어요. 검은 봉지 속, 토막토막 잘린 생닭을 들고 집에 돌아오는 동안, 저는 무수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아이는 나를 보며, 얼마나 원망하고 있었을까?’, ‘과연 나는 생명체를 잡아먹는 괴물인 걸까?’라고 말이죠. 지금 생각하면 웃긴 이야기일지 모르지만요.

맞아요, 저는 그날 저녁 외할머니께서 해주신 닭볶음탕을 먹지 못했어요. 저 왔다고, 당면도, 하지 감자도 넣어 맛있게 끓였는데 한 수저도 들지 않는다고 핀잔을 주셨던 어른들의 모습이 아직도 떠올라요. 저는 그때 배가 아파 먹기 싫다고 칭얼댔었는데, 외할머니가 살을 발라 자꾸 수저에 올려주셔서 결국엔 울음보가 터져버리고 말았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을까요? 저는 아직도 고기만 보면 특유의 역한 피비린내가 코끝을 자극하는 것만 같아요. 그것은 마치

저를 원망하는 무언가의 냄새 같다고 해야 할까요? 어찌면, 제가 너무 예민한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영혜 씨,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영혜 씨가 저만큼은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영혜 씨는 영혜 씨의 다리를 문 개를 마을 사람들이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개의 눈빛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채식주의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니까요. 영혜 씨도 어찌면 우리가 손대지 않았으면 고결하고 완전할 수 있는 생명이 우리라는 존재 하나 때문에 망가져 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영혜 씨, 저는 영혜 씨가 단순히 저 일 하나로 채식주의자를 고집하게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당신이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서 불구하고 채식을 고집하고, 친정 식구들이 사지를 잡고 영혜 씨 입속으로 넣어버린 고깃덩어리를 끝끝내 삼키지 않고 뱉어버리는 모습에서, 전 '영혜 씨에게 채식이란 일종의 자신을 지키는 방패이자 다른 이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무기가 되어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곰곰이 생각해본다면 주변 사람들의 강요는 때때로 폭력이 되기 십상이거든요.

폭력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물리적 구타만이 폭력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다름에 대해 이해해 주지 않는 행동, 그리고 틀에 맞추려 드는 행동 모두가 사회가 행하는 공공연한 폭력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문화와 습관이라는 미명 하에 너무 많은 것들을 획일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그 옛날, 가부장적인 문화라는 것도 결국 문화라는 이름 하나로 아버지의 폭력조차도 눈감아줘야 하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공부라는 것도 그래요. 학력 사회가 만들어낸 경쟁과 시험이라는 제도가 항상 1등만을 바라고, 뒤처지는 것을 부정하는 현상을 만들어낸 게 아닐까 싶어요. 생각해본다면 저 또한 이러한 세상의 눈초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과거가 있거든요. 부모님께 반항도 해보고, 선생님의 꾸지람에도 학교를 벗어나기도 해봤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세상의 부정과 절망이기에 결국 저는 다시 공부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노력하지 않으면 정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다운 삶보다도 사람들이 바라는 삶을 걸어가고자 노력했었죠.

맞아요. 어찌면 저는 채식주의자는 될 수 있었지만, 영혜 씨처럼 식물까지는 되지 못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나 혼자라도 세상의 풍파를 이겨내고 온전히 나답게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으면 좋으려만……. 저에게는 그런 힘도 용기도 주어지지 않았기에 식물로 변모할 수 없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기에 저는 여전히 채식으로 저 자신을 위로하며, 동시에 세상의 틀에 맞춰나가고자 노력할 수밖에 없겠지만요.

이번 장마는 어떨까요? 어찌면 신문에서 떠들어댔던 것과는 다르게 비가 적게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은 신이 아니기에 완벽하지 않잖아요. 인간의 지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세상 모든 것들을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요. 부디 이 사실을 모두가 인정하고, 세상의 다양성을,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타인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키웠으면 해요. 이 거대한 세상을, 그리고 세상을 둘러싼 자연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처럼 말이죠.

2021년 6월 29일 새벽

푸른 당신의 모습을 그리며

변예림 드림

2021학년도 1학기
스미스학부대학 인문교양교육디자인센터
삼육도서100 독후에세이 공모전

발행일 2021년
발행인 김일목
편집인 김명희
발행처 삼육대학교 스미스학부대학 인문교양교육디자인센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815(공릉2동 26-21)
TEL (02)3399-3383
E-mail. gse@syu.ac.kr

CopyRight. 삼육대학교
이 책의 저작권은 삼육대학교에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허락 없이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인용하거나 발췌하는 것을 금합니다.